

감사의 글

지난 2005년 12월 6일, 저희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소중한 나눔의 실천을 함께 해온 파트너 기업과 기관의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를 가졌습니다.

저희 재단에 지속적으로 성원과 지지로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, 다른 기회에 꼭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생님을 모실 것을 기약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
변화에 대한 요구와 또 이에 부응하는 솔한 기획들로 어지러운 때에,
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풍경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갑니다.

지난 6년 동안,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이라는 이름의 힘없는 이들의 친구로서 우정을 더해왔습니다. 이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늘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, 본래의 미션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 건설에 대한 비전은 더욱 강화되었고, 또 해마다 크게 고무되어 왔습니다.

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작고 큰 성과들도 많았습니다.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. 하오니, 저희 한국여성재단이 지금의 소명을 잊지 않고 더 훌륭하게 성취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, 선생님의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005년 12월 10일

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

박영숙